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복음과 문화 성경: 사도행전 15장 1-11절

Tag: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ی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15:1-11)

기독교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이 문화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기독교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회개운동부터 시작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자는 운동이다.

그리고 회개의 표징으로 세례를 사용하였다.

회개란, 사람의 문화는 모두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하자는 운동이다. 물론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성경이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 할례를 받아왔다. 그러나 기독교운동은 시초부터 세례를 받는다.(세례문화가 유대문화와 이방문화 모두를 위한 기독교문화이다.) 즉 할례문화가 세례문화로 변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만민에게로,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복음을 실현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다. 결코 성경진리의 DNA가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새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나양의 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속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비로서 완성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5-11절 말씀 다시 읽기)

율법과는 달리 복음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깃들여 있다. 왜냐하면 복음

은 성령운동이기 때문이다. 영생운동이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음-생명의 능력에는 돌연변이가 있음.

생명에는 적응력이 있음. 2주만 지나면 환경에 적응함. 다음 세대는 그 환경에 적응이 된 DNA가 발달됨. 그러나 DNA의 염기서열이 변하지는 않음. 그럴 경우 기형이 되거나 번성이 불가능해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그가 진리 자체인 이유는 그에게 생명과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하며 환경을 변화 시킨다. 이것을 오해해서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우려할 수 있으나, 결코 본질은 변경되지 않음.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곧 더 이상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복음과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연구를 많이 하였다.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 모든 문화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가?

문화란 무엇일까? (간략하게)

문화란 자연의 반대말이다.(컬처와 네이처)

사람은 자연을 변화 시키는 존재인가,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인가?

답;사람은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사람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자연스러울 수는 있으나 사람이 자연은 아니다.

자연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은 문화가 된다.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는가? 동물에게 있는 것이 문화라면, 그 문화는 그 동물의 생존과 직결된 생존 프로그램일 뿐이다. 환경이 바뀌어 그 생존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물은 멸종된다.

그러나 사람의 문화는 시대와 지역과 개개인 마다 다르다. 또한 문화적 우열이 존재한다. 누군가 더 멋있거나, 더 편리하거나, 더 유익하거나,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문화는 바뀐다. 물론 자존심 때문에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고, 율법주의적인 자들은 바뀌느니 차라지 죽으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문화적인 것들은 버린다. 보통은 나라를 중심으로 문화가 구별된다.

브라질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원시생활을 하는 부족들은 나름대로의 문화를 누리며 낙원에서 살고 있을까? 결코 아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더큰 집단으로부터 도망한 것일 뿐이다. 그들에게도 집과 학교와 옷과 차와 밥과 국가와 군대와 경찰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이런 문화가 왜 필요하는지 알려주고 이 문명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묻는다면 99%는 환영할 것이다. 왜냐면 문화적 결핍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야자수 나뭇잎 집과 레미안은 다르고, 레미안이 훨씬 큰 가치가 있고 99.9% 사람은 레미안을 선택한다.

문화는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간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한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문화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선악의 측면에서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로 나뉜다.

우열의 측면에서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로 나뉜다.

성숙의 측면에서는 거룩한 문화와 더러운 문화로 나뉜다.

종교적 측면에서는 기독교문화와 비기독교문화로 나뉜다.(오직 기독교문화만 공격을 받는다. 기독교문화가 공격적으로 여겨진다.)

철학적 측면에서는 무형문화와 유형문화로 나뉜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운동과 율법주의 운동으로 나뉜다.

문화에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판단에 의해서 긍정적인 문화와 부정적인 문화로 나뉜다.

사람은 문화라는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과 같다.

복음은 항상 부정적인 문화와 대립각을 세운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한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문화를 버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문화가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버리며, 그것과 인연을 끊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그들도 같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교이다. 그래서 결국 선교란 문화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외국어를 해야 하는가?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이나, 그보다는 복음이 항상 그랬듯이 복음이 복음답게 그 나라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필리핀에 카톨릭이 전해진지 벌써 50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복음이 그 나라의 문화를 변화시키지는 못한 면이 많았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나의 가정과 일터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행동 하나 하나, 생각 하나 하나, 물건 하나 하나, 습관 하나 하나,
따져보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바꿀 것 바꾸자. 성령께 의뢰하자.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실수도 많다. 우리가 실수가 적을수록 열매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26)

<찬양예배>

제목 : 예수님이 실천하신 복음 성경: 누가복음 19장 1-10절

Tag:

- 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 7 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10)